제 142호 구시대 교수법(?) 겁주기

<<편집 코멘트>>
지난주에 전자주간지 <새시대 교수법>이 한국의 여러 일간지에 다시 소개된 이후 많은 교육자들께서 구독을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워낙 다양한 기관에 계신 분들께서 구독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다 만족시켜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 최선을 다할 것이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벽 드림

구시대 교수법(?) 겁주기

제가 미국 대학에 입학한 첫날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학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게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공대에 입학했으니 너희들 앞날이 창창할 것이라는 등 학생들을 한참 추켜 올려주시더니 끝으로 조언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학생들 각자 자신의 오른쪽 옆에 있는 학생을 보시오. 그리고 왼쪽 옆 학생을 보시오. 학생 셋 중에 한 명은 졸업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릴것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리번거리면서 킥킥 웃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화창한 웃음소리가 아니고 신경과민성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으레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막상 학장님으로부터 듣고 보니 옆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험난할 대학 생활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지가 아니고 경쟁대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순간적이었지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셋 중에 꼭 내가 실패를 할 것 같은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불쾌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겁주기"는 요즘도 강의실에 자주 등장합니다.
"학점 잘 받으려면 이번 시험만큼은 잘 봐야해요."
"최소한 이 정도 내용도 모르면 무조건 F야."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앞날이 걱정스럽다."
학생들을 격려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협박입니다.

"겁주기"는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The Professor in the Classroom> (Vol. 8 No.6)는 겁주기가 좋은 교수법이 아닌 이유 네 가지를 나열합니다.

1. 겁주기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2. 겁주기는 실패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약간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때에 더 많이 노력하는 대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3. 겁주기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자신감을 잃은 학생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로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치기 일쑤라고 합니다.

4. 겁주기는 변화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사실 겁주기는 잘 되라고(좋은쪽으로 변하라고) 하는 말이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변하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겁주기는 학습 뿐 아니라 운동 선수들 훈련 때에도 똑같이 역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점에 대해 계속하겠습니다.

ⓒ 조벽, 2001